



# ‘손끝으로 읽는 책, 못 본다고 못 읽으면 안 되죠’

## 32권 4천여 쪽 달하는 점자 여행가이드북 펴내

대학 3학년 재학 중에 들어간 군대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야말로 제가 사회인으로서 해 볼 수 있는 일이지. 앞으로 도서관을 일반인들의 도서관 못지않게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이제 보니 내일이면 도서관 개관 5주년이 되는군요.(웃음)”

1982년 군복무중이던 한 젊은이가 수류탄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민한 순간이 왜 없었겠나. 그러나 그는 죽음 대신 남들보다 부지런히, 치열하게 사는 쪽을 택했다. 20여 년 후 중년의 나이가 된 그 젊은이는 자신이 앞장서 개관하게 된 시각장애인도서관에 앉아 직접 기획해 만든 책을 펼쳐보고 있다. “시각장애인도 촉각을 이용해 자유롭게 여행지로 가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만든 점자 여행가이드북이다.

이즈음 독자들은 궁금해한다. 살아 있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송경태 관장은 이에 “나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무조건 열심히 찾아서 하면 된다”고 대답한다. 시각장애인도서관 건립부터 점자 여행가이드북 발간까지... 실제로 송 씨는 같은 장애인 입장에서 다른 장애인들이 공감할 만한 문제들을 줄곧 풀어왔다.

“평소 여행을 좋아했는데 1999년에 월드컵 홍보차 미국대륙을 횡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개월 간 동부 뉴저지에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도보 횡단을 하게 됐죠. 각 주마다 가이드센터가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곳에 들러 길안내를 받으려고 하면 어디나 점자 가이드북이 놓여 있더라구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얼른 내가 먼저 만들어보자고 구상을 했죠.”

미국여행 중 길안내 점자책에서 착안...

힘난한 편집과정, 연 4천여 자원봉사자 참여

한국에 돌아온 송 관장은 국내를 산, 강, 명승고지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한 후 자료 검색부터 시작했다. 시·도별로 여행지의 위치, 관광개요, 숙박시설, 유명 음식점 소개까지 다양한 정보를 갈무리하면서 공들인 시간이 무색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특히 명승고지 풍경을 이미지로 소개하는 대신 맛깔스런 구어체로 설명을 해주어 독자배려를 했다는 게 송 관장으로서 더없이 뿌듯하다. 시각장애인 혼자서 펼쳐보고 실제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거동하기 힘든 시각장애인의 경우 집안에서 여행지를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내용은 아이디어다.

“제가 기획을 하긴 했지만 실제 땀을 흘려준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매일 10명에서 15명의 지원봉사자들이 참여했으니 총 4천 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책이니 다름없죠. 험난한 편집과정을 함께 해주 그분들이 제일 고맙더군요.”

실제로 점자책이 나오는 데는 단행본 한 권이 출간되는 것의 몇 배 수고가 따른다. 점자책 발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제작비도 문제지만, 설사 자본이 있더라도 제작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도 무시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점자도서는 출간된 단행본을 놓고 그것을 한글과 일로 옮긴 후 점자 출력 프린트에서 일일이 한 장씩 출력해 나온다. 이때 점자 프린터기에서 울퉁불퉁한 프린트 한 장이 출력되는 데만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송 관장은 “1질에 32권, 총 페이지수로 치면 4천 쪽에 달하는 여행가이드북을 1년여 만에 만들었다는 것은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닌 셈”이라고 강조했다.

#### 순수 무가지... 시각장애인 · 관련단체에 무상 배포

이번 책은 순수하게 무가<sup>無價</sup>치를 표방한다. 송 관장은 애초부터 시각장애인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든 책이니만큼 판매용으로 만들지 않고, 완성한 100질 모두를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었다. 일부는 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으며, 나머지는 소식을 듣고 문의를 해온 이들에게 선착순으로 배송했다. 7월 초에 발간된 책은 금세 주인들 손에 들어갔고 벌써 동이 난 상태다.

송 관장은 이번 일에 대해 주위에서 칭찬을 하기라도 하면 “내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라고 자세를 낮춘다. 기왕에 도서관에 비치된 점자 출력 프린터를 사용한 것이고, 자신은 종이값 일부를 대준 것뿐이라는 것. 또한 이 일은 복지가, 자원봉사자들의 힘이었다는 말도 버릇처럼 잊지 않는다. 그러나 출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미담 뉴스거리를 만들곤 했던 그의 전력이 입증하듯, 송 관장의 공로는 결코 낮춰볼 수만은 없는 것이란 느낌이 든다.

그간 토막뉴스 지면을 장식한 기사만도 여럿이다. 1999년 한글 점자교육 웹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점자소식지인 월간 <온고을 하얀샘>을 창간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달구지 콜 차량봉사대’를 창간하기도 했다. 맹인안내견 ‘찬미’와 월드컵 홍보차 미국 대륙 도보횡단을 하였고,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백두산, 한라산을 차례로 등정했고, 목포에서 판문점까지 남한을 도보로 종단하기도 했다. 물론 출판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을 끌었던 쟁거는 역시 2000년 7월 10일 전국에서 아홉 번째 시각장애인도서관을 전라북도에 직접 개관한 것이다. 또한 송 관장은 2004년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인터넷도서관을 개설해 청와대에서 수여하는 ‘신지식인상’ 수상의 영예까지 얻은 바 있다.

#### 점자책 디지털 음성 데이터 작업 시급.

“출판사 편집 자료 얻어 점자책 만들었으면...”

인터뷰 초반 도서관 개관 당시를 설명하던 송 관장은 “나도 모르

게 어느덧 5년이 흘렀네요”라며 지금껏 지내온 시간을 곱씹어봤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소리로 듣는 인터넷 도서관’을 도입하려고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130평 규모의 아담한 도서관은 그간 점자도서 3만 권을 보유하게 됐고, 지금까지 4,000천여 권 이상의 도서 대출 리스트를 자랑하며 전북 시각장애인들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굳혔다.

“전라북도만 해도 1만 2천 명 정도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저야 국가유공자로서 연금도 받고 있지만 저보다 힘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학 3학년 재학 중에 들어간 군대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야말로 제가 사회인으로서 해볼 수 있는 일이지요. 앞으로 도서관을 일반인들의 도서관 못지않게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무료 우편 대출을 기본 운영시스템으로 삼고 있는 시각장애인도서관은 무엇보다도 디지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점자책으로 된 도서를 디지털 소리로 녹음해 음성 데이터로 구축해 놓는 작업이다. 이번에 나온 점자 여행가이드북의 경우도 여건이 허락되는 한 아나운서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음성으로 녹음해 놓을 계획이다. 또한 송 관장은 향후 전북에 있는 문화재를 소개하는 관련 도서를 준비하고 싶다는 또 다른 포부를 밝혔다. 현재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건립추진을 위한 모금운동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있는 중인데 지난 6월에는 어느 복지가로부터 570평의 부지를 기증받기도 했다. 이를 장애이동이나 노인들을 위한 공간 운영에 투자할 구상도 하고 있다.

현재 송 관장은 한일장신대, 서남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출강중이다.

“출판계에 대해 아는 건 없지만 함께 할 일이 많다는 건 압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할 일들이 많으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쏟아지는 신간도서가 엄청나다고들 하는데, 장애인들은 그 신간을 최소 1년 후에나 읽어볼 수 있어요. 신간이 점자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보통 1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이지요. 저작권이 허락한다면 출판사에서 갖고 계신 워드 데이터라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도 하루 빨리 지금의 베스트셀러를 접하고 사람들과 편하게 책 이야기를 나누길 바랍니다. 책도 정보인만큼 그들도 정보를 빨리 습득할 권리를 갖고 있지않습니까?” **※**

취재 김철연 기자 | 사진\_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제공

